

최소주의에서의 영허사 주어에 관하여*

이 만 기
(서울대학교)

Lee, Man-ki. (2002). On the null expletive subjects in Minimalism. *Language Research* 38(1), 179-209.

The present paper argues, in the line of Chomsky (1998), that the EPP(Extended Projection Principle)-feature of T may not be universally obligatory as the EPP-feature of phase heads v/C varies parametrically among languages and if available is optional. Accepting the idea of Fox (1998) and Chomsky (1999), we propose that optional operations can apply only if they have an effect on outcome and that the EPP position of T in Spanish can be optionally assigned interpretive complex INT(semantic interpretation such as topic). On the basis of Spanish data, we claim that T in Spanish can have EPP optional feature. As a result of this claim, we point out that (i) VSO orders lack an expletive pro, (ii) in the languages that don't have EPP feature obligatorily, there will not be a lexical expletive as 'it' in English or 'il' in French, (iii) in Spanish (XP)VS word order, the preverbal XP constituent(including 'subject') will occupy the [Spec, TP] position, checking the EPP optional feature of T and, as a result, showing the INT semantic effect such as a topic interpretation.

Key words: minimalism, expletive 'pro', EPP, interpretive complex INT, optional operations

1. 서 론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카탈란어와 같은 로망스 언어들은 영어나 불어와는 달리 주어가 생략되어 나타날 수 있어서 영주어(null subject) 또는 *pro-drop* 언어라고 불린다. 전통적으로 생성문법 이론에서는 이들 영주어 언어가 영어와 마찬가지로 [Spec, IP] 위치에 반드시 주어를 가지며, 따라서 후치 주어가 나타나는 영주어 언어의 문장에서 [Spec, IP] 위치에 발음되지 않는 영허사(null

* 본 연구는 2001년 5월에 있었던 서울대 어학연구소 191회 월례발표회(최소주의와 확대투사원리)와 같은 해 8월에 열렸던 제 3회 생성문법 여름학교(격 자질과 EPP)에서 각각 발표된 바 있다. 발표 당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질문 및 논평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물론 논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필자의 것이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간접연구경비에서 지원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expletive) pro를 가진다고 가정해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음성형태와 논리 형태에서 의미있는 문법적 요소들만이 문장의 파생도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최소주의적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기존에 제안되어 왔던 영허사 주어의 문장생성 과정에 참여하는 배번집합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할 것이다. 영주어 언어에서 영허사 주어 pro가 불필요함을 제안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생성문법의 이론들, 특히 Chomsky(1998)에서 제안되어온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앞으로 EPP라 칭함)를 재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EPP가 모든 언어에 보편적·의무적인 것이라는 Chomsky(1998)의 가정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EPP는 개별언어에 따라서 매개변인화가 가능하며 스페인어와 같은 영주어 언어의 경우 시제소 Tense의 EPP는 수의적 자질(optional feature)임을 제안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연구테마를 주로 다룰 것이다. 첫 번째 연구테마는, EPP가 문법이론에서 격 이론과 같은 다른 부분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두 번째는 EPP가 언어 보편적 원리로서 의무적 자질인지와 연관된 테마이다. 이러한 연구테마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Chomsky (1998)가 가정하는 EPP와 영허사의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EPP가 격 이론이나 음성조건과 같은 다른 부분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수의적 자질과 의미해석 효과 INT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5장에서는 스페인어와 같은 영주어 언어를 통하여, Chomsky (1998)에서 가정하는 범주선택자질로서의 EPP 개념이 보편적·의무적 형상구조 조건은 아니며, 개별언어에 따라서 의무적이거나 수의적 자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할 것이다. 따라서, EPP가 수의적 자질인 스페인어의 경우, 후치주어 VS 구문에서 영허사 pro를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스페인어에서 동사 앞으로 전치된 문장 구성성분이 의미-해석적 효과를 띠는 현상은 EPP의 수의적 자질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이다. 6장에서는 어휘허사와 EPP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 제시될 것이다.

2. EPP와 영허사 주어 'pro'

확대투사원리 EPP는 전통적으로 모든 질의 IP 투사는 그의 지정어(specifier) 위치에 논항이나 허사를 위치시켜야 한다는 보편적 적형성 조건(universal condition of well-formedness)으로 가정되어 왔다. 즉, 영어에서 주어가 비록 의미역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문장에는 허사 주어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포착해야 했던 것이다.

- (1) a. *(It) seems that John is honest.
- b. *(There) are some policemen in the room.
- c. Mary believes [*(it) to be likely that John is crazy]
- d. Mary believes [*(there) to be some policemen in the room]

위의 예문들에서 seems, are는 주어 위치를 의미역 표시하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허사(expletive) it나 there가 주어로서 필요하다. 이 사실을 다루기 위해서, Chomsky(1982)는 의미역 구조를 반영하는 투사원리에 주어의 의무성에 관한 규정을 덧붙여,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EPP)를 제시한다.

(2) 확대투사원리

모든 절은 주어를 갖는다. (Every clause must have a subject).

(1)의 예문들에서 보듯이 모든 절은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영어 자료의 사실에서 출발한 확대투사원리는 모든 통사 표시층위에서 주어위치인 [Spec, IP] 위치가 투사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한다. 스페인어나 카탈란어와 같은 영주어 로망스 언어들에는 영어의 it와 there와 같은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허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언어에도 ‘허사 pro’로 알려진 영요소(null element)를 IP의 지정어 위치에 넣음으로써 EPP가 만족된다고 가정되었다.)

- (3) a. ‘pro’ han llorado los niños
 have cried the boys
 ‘the boys have cried.’
- b. ‘pro’ llegaron los trenes
 arrived the trains
 ‘the trains arrived’

1) 영주어 언어에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pro가 있다.

- (i) 논항 pro: 주어대명사가 생략되어 나타난다.
 [pro] hablo español.
 speak-I Spanish
- (ii) 영하사 pro: 어휘주어가 도치되어 나타난다.
 [pro] ha comido Juan.
 has eaten Juan

(i) 문장의 주어는 논항으로서 생략된 대명사이며 이를 논항 ‘pro’라 칭하며, (ii) 문장의 [Spec, IP] 주어위치에는, 본문에서와 같이, 논항이 아닌 허사 ‘pro’로서 단지 EPP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삽입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미자질과 음성자질이 없는 영하사 ‘pro’를 문법체계 내에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음성자질은 없으나 의미자질을 지니는 논항 pro나 부정사절의 주어로 설정되는 PRO와 같은 광범주 논항의 제거 가능성은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는다. PRO의 경우, 상승구문과 마찬가지로 이동으로 설명함으로써 제거 가능하다는 제안도 있다.

- (4) 'pro' es necesario que venga Juan.
is necessary that comes Juan
'It is necessary that John comes'

비록 음성적 자질이 없는 영허사가 존재한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지만, 이론 내적인 이유 때문에 '허사 pro 가설'이 세워졌던 것이다. 즉, 확대투사원리 EPP는 보편문법을 구성하는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서 모든 자연언어에서 반드시 만족되어야 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어휘적-음성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 문법적 고안물인 pro를 [Spec, IP] 주어위치에 채워 넣는 것이다.

한편, 지배-결속이론에서는 EPP 주어를 (주)격 주어와 동일(EPP 주어 = 격 주어)한 것으로 보아 EPP를 격 이론(Case Theory)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Fukui와 Speas(1986)는 기능적 핵인 INFL이 기능자질(Function-Feature)인 격을 방출(discharge)해야 하며, 이 격 자질을 [Spec, IP] 주어위치에서 논항 주어나 허사 주어가 받아 포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5) Fukui와 Speas(1986)의 포화원리(Saturation Principle)²⁾
INFL(+Tense)의 기능자질인 주격은 [Spec, IP]위치에 방출되어야 한다.

이들의 제안은, "격과는 무관하게" [Spec, IP] 위치가 반드시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EPP를 격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³⁾ 즉, 허사 주어는 EPP 때문이 아니라 INFL의 격 자질 때문에 [Spec, IP] 주어위치에 있는 것이다. 한편, Koopman와 Sportiche(1991)는 논항 주어 NP도 EPP가 아닌 격 이론으로 설명한다. 즉, 논항 NP 주어는 [Spec, IP] 위치에서 기저 생성된 것이 아니라, 주격을 받기 위해 동사구 내에서 이동된 파생주어라는 것이다.

- (6) Koopman와 Sportiche(1991)의 동사구내 주어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
VP안에서 기저 생성된 논항 주어는 지정어-핵 일치에 의한 격을 받기 위해서 [Spec, IP]로 올라간다.

2) Rothstein(1983)이 제안한 포화원리는 의미역에 근거한 주술관계에서 도출된 것이다. 즉, 어휘 핵으로서의 술어(predicate)는 언제나 서술의 대상이 되는 요소인 주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어휘 핵 술어와는 관련이 없는, 의미역이 결여된 허사주어를 설명할 수 없다.

3) 지배-결속 이론에서 격 이론은, 모든 논항은 격을 받아야 LF에서 해석 가능하다는 가시성 조건(Visibility Condition)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격 이론은 의미역 이론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시성 조건은 논항이 아닌 허사가 격을 받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허사 주어를 INFL의 격자질 포화현상으로 설명하는 Fukui & Speas의 제안은 격이론의 독자성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배-결속 이론에서는 [Spec, IP] 위치가 모든 표시층위에서 항상 투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위치에는 논항이든 허사든 통사적 주어로 채워져 있는 현상을 EPP로 포착하려 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EPP는 독립적 원리가 아니며 격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여러 학자들이 제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시층위(level of representation)로서의 심층구조, 표면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최소주의 프로그램에서는 영어의 의무적 주어 출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시제소 T의 형태론적 비해석 자질이 점검-삭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비해석 자질이 점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LF 표시층위에서 완전해석원리에 의거 비문 처리된다). 예를 들어, Chomsky(1992)에서는 EPP를 T의 N-자질로, Chomsky(1995)에서는 T의 D-자질로서 형태론적 자질점검(morphological feature checking)과 연관시켜 설명하였다. Chomsky(1992, p. 44)에서는, EPP는 기능적 핵 T의 NP-자질에 불과하며 이 형태 자질이 강(strong)자질인지 약(weak)자질인지에 따라 언어간의 어순 차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T의 NP-자질이 강한 영어의 경우 반드시 SVO 어순을 가지며 [Spec, IP] 위치에는 문자화(Spell-Out) 이전에 반드시 주어가 출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주어 의미역이 없는 문장의 경우 허사 'it'나 'there'가 주어 위치에 삽입되어 T의 NP-자질을 점검해야 한다. 강자질은 음성부에서 보이며(visible) 적법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문자화 이후 계속 남아 있으면 그 파생과정은 파탄(crash)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강자질은 문자화 이전에 점검되어 삭제되어야 한다고 Chomsky(1992, p. 43)는 가정한다. 반면에, T의 NP-자질이 약자질이면 지연(procrastinate)원리란 경제성에 의거 문자화 이후 내현적 통사부(covert syntax)에서 'Move- α '에 의해 점검된다.⁴⁾

한편, Chomsky(1995)에서는 EPP 주어를 격 주어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EPP 주어 ≠ 격 주어). 즉, EPP를 격자질 점검과 분리한다(EPP is divorced from Case).⁵⁾ Chomsky(1995)에 의하면 EPP는 T의 D-(강/약)자질이다: 강자질은 구성

4) 약자질이 지연원리에 따라 내현적 통사부에서 점검, 삭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기능적 핵의 형태론적 자질은 비해석적(uninterpretable)이기 때문에 LF 접합부에서 남아 있으면 완전해석(Full Interpretation)원리를 어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비해석적 자질은 통사부에서 파생과정(derivation)을 통하여 점검, 삭제되어야 하며 LF 접합부에서는 해석가능한 요소들만 남아 있어야 한다.

5) Chomsky(1992)까지는 영어의 허사 there-구문에서 there가 격자질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면, Chomsky(1981)에서는 격전이 분석(Case transmission)을 통해 관련 명사구가 LF에서 격을 전수 받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분석은 there-구문의 한정성 효과(i)와 (ii) 문장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

(i) *There is the man/every man in the room.
 (ii) a. *There is likely [someone to be here]
 b. *We consider [there a man in the room]

최소주의 프로그램을 제안할 당시인 Chomsky(1992, p. 46)에서도 허사 there는 LF-affix로서 격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문장은 파생되나(the derivation converges) 거의 뭉치 알 수 없는(semi-gibberish) 것으로 본다:

(iii) there seems to [α a strange man] [that it is raining outside]

성분의 음성자질·형식자질·의미자질 모두의 Pied-Piping에 의한 외현적 범주이동에 의해 점검·삭제되며, 약자질은 형태 자질만의 이동인 ‘Move-F’에 의해 점검·삭제된다. 다음의 문장을 보자.

(7) There are people in the garden.

위의 문장에서, 허사 there는 Tense의 EPP 자질인 D-자질만을 점검한다.(the expletive has neither Case nor ϕ -features. FF(*there*) contains only D, which suffices to satisfy the EPP) 즉, 허사 there는 시제소 T와 병합되어 [Spec, TP] 위치를 구성하는데, 이 파생과정에서 Tense의 EPP 자질인 D-자질만을 점검한다. 한편으로, Tense의 주격자질은 관련명사구 ‘people’이 내현적 통사부에서 자질이동(Move-F)을 통하여 점검된다.

그러나, 과연 EPP 자질이 D-자질인가? Collins(1997)에 의하면, T의 EPP 자질은 어떠한 범주 자질에 의해서도 점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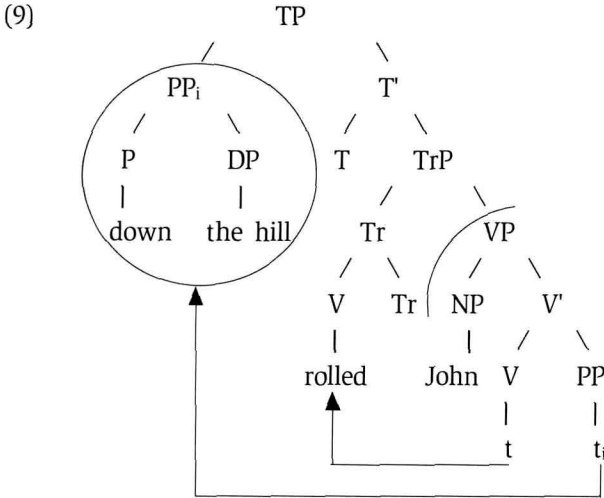
- (8) a. John rolled down the hill.
b. Down the hill rolled John.

Collins(1997)는 위의 두 문장에서 동사구내 기저 생성된 NP와 PP는 동일한 최소영역(minimal domain)에 있으므로 T로부터 등거리(equidistance)에 있으며,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국부적 경제성(local economy)에 의거 T와 병합이동을 통해 [Spec, TP] 위치에서 T의 D-강자질을 점검한다고 가정한다(NP의 경우에는 T의 주격자질도 점검함/ PP의 경우 T의 주격자질은 covert syntax에서 NP 명사구 John의 자질이동을 통하여 점검됨).⁶⁾

즉, 허사 there는 그의 모든 형태론적 자질(격자질)을 점검했으므로 적법한 대상이나, LF에서 affix로서 적절한 해석을 받지 못해 이상한 문장이 된다고 가정한다: α 명사구가 이기성(Greed) 원리에 의거 LF에서 이동하지 않으므로, LF 접사 there는 의미해석을 받지 못한다(free-standing there receives no semantic interpretation). 그러나, 허사 there가 격을 가진다는 분석은 최소주의에서 다음의 맹점을 지닌다: 허사 there가 INFL의 주격을 점검해버렸다면, 관련 명사구 NP가 LF에서 이동해 점검할 격자질이 없다.

Chomsky(1995)에서는 허사 there를 더 이상 LF-affix로 간주하지 않으며 또한 격자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허사 there-구문의 격점검 문제는 없어지며, 위의 (iii) 문장은 비문으로 처리된다(the derivation crashes); there가 T의 D-강자질을 점검하나 T의 주격자질이 점검 안되어 이 문장은 완전해석원리를 어긴다(α 명사구는 전치사 to에 의해 격점검 되었으므로 covert syntax에서 자질이동을 해더라도 T의 주격(비해석) 자질을 점검할 수 없다).

- 6) Collins(1997)는 TrP가 Chomsky(1995)가 가정 한 μ P와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역성(Causativity)이 있는 Transitive와 Intransitive구문의 외적 논항 Agent는 [Spec, TrP(μ P)]에서 기저병합된다. 대격동사(Unaccusative)의 경우, Agent가 없으므로 이 위치는 없다. 그러나, Chomsky가 비대격동사 구문에 μ P를 투사시키지 않는 반면, Collins는 TrP를 투사시킨다. 그 이유는 위의 장소전치구문에서 동사의 Tr로의 이동을 통해 PP+V+S어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다. Collins는 Theme 명사구를 [Spec, VP] 위치에 두는데 이는 Hale와 Keyser(1993)의 논항구조에 대한 제안을 따른 것이다: [μ P agent [VP theme [v V locative]]]



따라서 Collins는 T의 EPP 자질과 점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자질에는 DP의 D 자질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주 자질(any categorial feature)도 포함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장소전치구문의 경우 PP의 P자질이 T의 EPP 자질과 점검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Jang(1997)에서는 더 나아가 영어의 주어 위치에는 전치사구가 아닌 전치사와 같은 요소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10) a. Just as surprising was his love for clothes.
- b. Taking turns, as usual, were his two sisters.
- c. Up jumped a rabbit.

이러한 동사 앞 주어위치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동사범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Chomsky(1998)에서는 EPP를 특정 형태론적 자질이 아닌 시제소의 범주 선택자질(Categorial selectional feature)로 다룬다.⁷⁾ 그는 더 나아가서, TP의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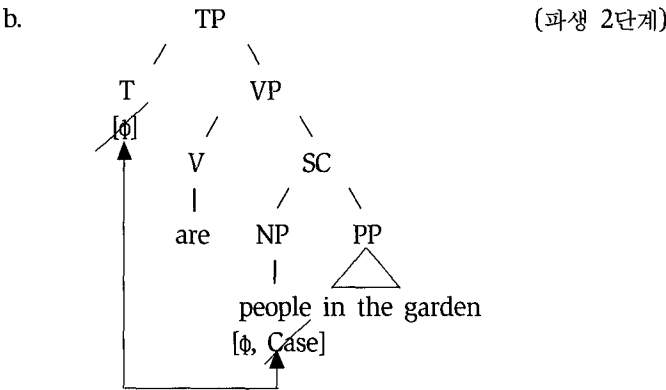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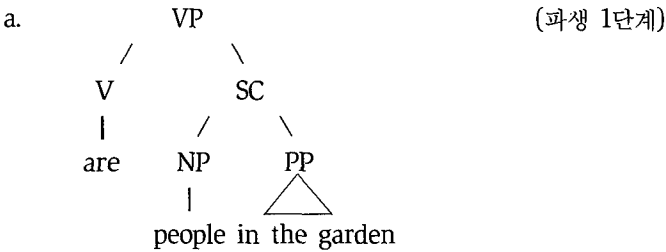
7) EPP에 관한 Chomsky(1998)의 제안과 같은 맥락에서, Lasnik(2000)은 영어 VP-ellipsis 자료를 통해 EPP는 자질 점검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Lasnik은 강자질은 pied-piping에 의한 외현적 범주이동이나, 자질만의 이동(Move-F) 이후 동사구의 삭제에 의해 점검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PF crash can be avoided either by pied-piping or by deletion a category containing the lower verb).

- (i) a. Mary said she can't swim, even though she (really) can swim.
- b. *Mary said she can't swim, even though (really) can she swim.

(ib)에서 보듯이 주어 she의 pied-piping 없이는 VP-ellipsis가 불가능하다. 영어 T의 EPP가 강자질이라면, 그의 가정에 의해, 주어 she의 형식자질만 T로 이동한 후 VP-ellipsis를 통해서 강자질이 점검되어 (ib)가 정문으로 잘못 예측된다.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Lasnik은 주어 명사구의 의무적 이동(EPP)은 T의 자질점검을 위한 이동이 아니라고 본다.

정어 위치로의 주어 이동뿐만 아니라, 구(XP) 범주의 모든 종류의 외현적 이동을 기능적 핵(C, T, *v*)의 EPP라는 범주 선택자질(Categorical selectional feature)로 설명한다(Chomsky (1995)에서는 강자질로 외현적 이동을 설명했음). 따라서, T뿐만 아니라, C나 *v*도 EPP 자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주어 명사구의 이동은 T의 EPP 범주선택자질 때문이며, 목적어 이동(object shift)은 *v*의 EPP 범주 선택자질 때문이며, Wh-구의 외현적 이동은 C의 EPP 범주선택자질 때문에 생기는 파생과정이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의 영어 허사구문을 Chomsky(1998)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생단계에 의해 생성된다고 설명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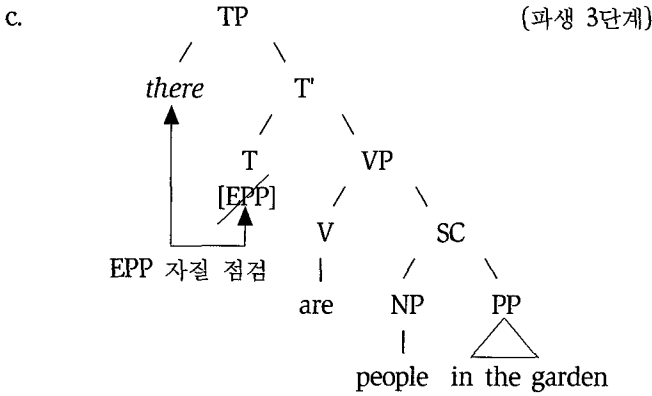
(11) There are people in the garden.



제자리에서 Agree에 의해 T(Probe)가 NP(Goal)에 주격 value 허가

8) Chomsky(1998)에서는 Building-Up Construction에 대한 파생주의적 접근을 극대화하고 있다 (cf. Epstein, Groat, Kawashima & Kitahara, 1998). 이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자질의 강/약 구분 제거:
구(XP)범주의 외현적 이동 모두를 기능적 핵(C, T, *v*)의 EPP라는 범주 선택자질(Categorical selectional feature)로 설명: EPP 자질이 강자질을 대신.
- ② 자질이동(move-F)을 일치(Agree)라는 메카니즘으로 대체:
약자질의 경우, 자질이동없이 제자리에서 기능적 핵과 일치를 통하여 자질을 점검, 삭제
- ③ 외현적 통사부와 내현적 통사부라는 구분 제거: 지연원리(procrastinate)는 불필요.
외현적 이동(move)과 일치 Agree를 통한 자질 점검 과정이 언제든지 파생적으로 도출: multiple spell-out/ derivation by phase(uP, CP).



위에서 보듯이, 먼저 순수병합에 의해서 의미역 구조(11a)가 생성된 후, (11b)에 서처럼 후치주어 NP(Goal)의 격자질과 일치자질은 기능핵 T(Probe)의 일치자질 과 일치 Agree에 의해서 점검된다. 즉, Chomsky(1995)에서 가정한 내현적 통사 부에서의 자질만의 이동(Move-F)을 통해 비해석 자질이 점검, 삭제되는 것이 아 니라, 통사적 파생과정 중에 제자리에서 Agree에 의해 점검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T는 범주선택자질인 EPP 자질을 제거해야 하므로, (11c)에서처럼 허사 there를 지정어 위치인 [Spec, TP]에 병합시켜 T의 EPP 범주선택자질을 점검, 삭제하여 준다. 따라서 기능핵 Probe T의 비해석 자질인 ϕ -자질과 EPP 자질, 그 리고 관련 명사구 NP의 비해석 자질인 격 자질은 모두 파생과정을 통하여 점검, 삭제되므로 이 문장은 LF 접합부에서 완전해석원리를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즉, Chomsky(1998)는 EPP 자질을 D와 같은 형태자질이 아닌 T의 범주 선택자질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Chomsky(1998)에서는 허사 there가 Spec-T에서 X^0 핵으로서 [person] 자질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허사 there가 부정사질의 SPEC-Tdef로 이동 해서는 Tdef의 [person] 자질을 점검, 삭제해주며, 나아가 시제절의 SPEC-Tcomp로 이동해서는 Tcomp의 full ϕ -자질과 일치(match)해서 there 자신의 [person] 비 해석 자질을 삭제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Lee, H-B. (1999)에서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허사 there는 T의 EPP 자질만을 점검한다고 가정한다.

첫째, SPEC-Tdef로 a 나 허사 there의 이동은 Tdef의 EPP 자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가능하다. Chomsky(1998, p. 40)는 격 자질을 지닌 a 나 [person] 자 질을 지닌 허사 there가 SPEC-Tdef로 이동시, “one fell swoop” 삭제방식에 의 거, Tdef의 [person] 자질은 삭제하나 a 의 격 자질이나 허사의 [person] 자질은 삭제하지 못해, a 나 허사가 계속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Tdef가 EPP 자질만 가지더라도 a 의 격 자질을 삭제할 수 없어 a 는 계속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Tdef가 EPP 자질만 가진다면, 허사 there의 경우에도 [person]

자질을 두어 Tdef의 [person] 자질과 일치해야할 이론 내적인 이유는 없는 것이다.

둘째, Chomsky(1998, p. 37)에서 정의되는 이동(Move)의 문제이다(cf. Lee, H-B, 1999). 그는 이동(Move)을 Agree와 Merge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작용으로 정의한다: The combination of selection of P(G), Merge of P(G), and feature-deletion under match(Agree) is the composite operation Move. 따라서 이동을 하는 a는 probe와 병합(merge)한 위치에서 자신의 비해석 자질을 일치(Agree)에 의해 삭제한다(반면, 이동없이 Agree만 하는 요소는 제자리에서 비해석 자질을 삭제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동(Move)이 반드시 Agree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에서 보듯이, Spec-T로 이동하는 요소는 허사 there이지만 주절의 T와 일치하는 요소는 후치 명사구 a man이다. 문제는 왜 주절 T의 ϕ -자질이 [person] 자질을 가진 허사 there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a man과 일치를 해야하는 가이다.

(12) T-seems [_{TP} there to be a man in the room]

(13) There seems [t to be a man in the room]

Lee, H-B. (1999)의 제안을 따라, Move와 Agree는 별개의 과정이라고 가정한다면, there에 [person] 자질을 가정하지 않음으로서 앞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주절 T probe는 Agree의 Goal로서 there보다 멀리 있는 a man의 ϕ -자질을 선택할 것이며, T의 EPP 비해석 자질을 삭제하기 위하여 허사 there를 이동시킨다. EPP에 근거한 Move에 대한 재정의는 허사 there가 [person] 자질을 가진다고 가정함으로써 생기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기술적(technical)인 문제이다.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14) there is a man in the garden

there가 Spec-T에 순수 병합되기 전에, 이미 T의 ϕ -자질은 후치 명사구 a man과 Agree를 통해 삭제되었으므로, 허사 there는 자신의 [person] 자질을 점검할 수 없다. 허사 there가 T의 EPP 자질만 점검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허사 there가 [person] 자질을 가진다는 제안은 Chomsky (1998)에서 제시하는 이론 내적 틀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3. EPP의 제거 가능성

앞서 언급한대로, Chomsky(1995, 1998)에서 가정한 바로는 EPP는 격 자질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독립적인 문법 위상을 지니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이

장에서는 최소주의 이론 내에서 EPP가 격 자질이나 PF 조건과 같은 다른 부분으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3.1. EPP는 Case 자질 점검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

Epstein과 Seely (1999)은 A-이동의 동인(driving force)은 EPP가 아닌 'Case'라고 제안한다. 즉, 지정어-핵 관계(Spec-Head relation)에 의한 격 자질 점검으로 EPP-주어를 설명한다. 이들의 이러한 제안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허사 there도 격 자질 가지며, 관련명사구(associate NP)는 부분격(Partitive Case)을 점검하고, Tdef(부정사절 시제소)는 격자질이 없으므로 EPP 자질도 없어 [Spec, TP] 위치가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의 문장에서 기저생성된 명사구 주어 'we'는 내포절의 [Spec, TP] 위치에 들리지 않고 곧장 주절의 [Spec, TP]로 이동해서 시제소 T의 주격자질을 점검한다.

(15) We¹ are likely [to be asked [to [we² build airplanes]]]

Move is "one fell swoop."

한편, Boeckx(2000)도 EPP는 격 점검(Case-checking)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는 TP는 국면(Phase)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어(Specifier)를 만들어서 주격을 점검·삭제해야 SpecIP가 Spell-Out된다고 가정한다(Spell-Out triggered by the creation of a specifier allows nominative Case to be erased, and the derivation to converge).⁹⁾

그러나, EPP를 격 점검으로 대체하려는 이러한 제안은 다음을 설명할 수 없다. 먼저, EPP 주어와 주격 주어가 서로 다른 다음의 예문들을 설명할 수 없다.

- (16) a. [Gathered pointlessly in the yard] stood three women.
- b. [Just as surprising] was his love for clothes.
- c. [In] came a man.
- d. [Up] jumped a rabbit.

위의 예문들은 서로 다른 EPP 주어(동사 앞 요소)와 격 주어(후치 명사구)를 가지고 있다. 이는 EPP 주어를 격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⁰⁾

9) Martin(1999)도 EPP를 Case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제안한다. 그는 ECM 구문의 주어도 격 점검을 위한 목적어 상승(object shift)으로 가정하며, 허사 there도 격점검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Martin도 EPP는 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허사 there-구문에서 there가 격을 점검하고 후치명사구 NP가 부분격을 점검한다는 가정을 따르므로, there-구문은 EPP의 독립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논문의 6장을 참고바람).

10) Kim, K-S.(2000)에서는 [Spec, IP] 주어자리를 차지하는 형용사구, 전치사구, 부사구도 논항으로서 주

둘째, 동사구 내 제자리(in-situ)에서 Agree에 의해 주격이 허가되는 언어(영주어 언어, Irish)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음의 스페인어 예문을 살펴보자.

- (17) Ayer compraron mis padres un ordenador. (스페인어)
 yesterday bought my parents a computer
 'Yesterday, my parents bought a computer'

위 예문에서 주격은 후치(postverbal) 명사구가 받는다. 즉, EPP가 주격 점검과는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후치 명사구는 전위(displacement)없이 제자리에서 Agree에 의해 격 점검된다.

셋째, Agree에 의한 제자리 주격점검이 가능하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주어 가 이동하는 현상을 격 자질 점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8) a. *Are likely [to be asked [to we build airplanes]]
 b. We are likely [t₃ to be asked [t₂ to [t₁ build airplanes]]]

위의 예문에서 보다시피, (18b)의 주어 'we'가 반드시 주절의 [Spec, TP] 위치로 이동해야 하는 이유는 T의 격 자질이 아니라 EPP 자질로 설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T의 격 자질은 제자리에 있는 (18a)의 동사구 내 주어 'we'와 Agree에 의해 점검될 수 있기 때문이다.

3.2. EPP는 PF-조건인가?

주어의 의무적 출현현상인 EPP를 음성 조건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Jang (1997)에서는 다음과 같이 EPP를 설명한다.

(19) The EPP Requirement (Jang, 1997)

EPP는 자질점검 현상이 아니라 TP의 지정어 위치가 반드시 외현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보편적 요구이다.

격을 점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i) a. Under the chair is the best place for a cat to sleep. PP
 b. Proud of himself seems to be what John is. AP
 c. Cautiously is how I would suggest you do it. AdvP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장소전치구문에서 후치 명사구가 어떻게 격을 점검하는 가이다.

- (ii) [Down the hill] rolled John.

전치된 전치사구가 T와 격을 점검한다면, 후치 명사구 John은 자신의 격자질(비해석 자질)을 점검·삭제할 수 없다. 한가지 가능성은 Belletti (1988)의 가정에 의한 부분 내재격(inherent partitive Case) 점검이나, 후치 명사구 John은 한정 명사구이기 때문에 부분 내재격을 받을 수 없다.

Jang(1997)은 주어자리는 문법상의 다른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음성자질을 지닌 의현적 요소로 채워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EPP를 사실상 음성부 PF 조건으로 축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PP 현상을 음성조건만으로 축소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EPP 주어의 의미 제약을 설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Kim, K-S (2000)에서는 상태자질을 지닌 전치사구(PP[+statee(상태자질)])만이 EPP-주어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보자.

- (20) a. [In the swamp] was found a child. [+statee]
 b. *[By the policeman] was found a child. [-statee]

- (21) a. [On that hill] appears to be located a cathedral. [+statee]
 b. *[Into the room] seemed to walk John. [-statee]

Kim(2000)은 (20a)와 (21a)의 장소 전치사구는 상태술어와 어울릴 수 있어 상태자질[+statee]을 지니며, theme 논항보다 위계가 높아 EPP-주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행위자를 나타내는 (20b)의 PP와 방향을 나타내는 (21b)의 PP는 상태자역([-statee])과는 의미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것이므로, theme 논항보다 높은 위계를 차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들 PP는 주어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예: [+location, +statee] > [+theme] / [+theme] > [+location]). EPP가 음성조건이라면, theme과 PP로 이루어진 비대격 구문에서 전치사구 PP의 의미에 관계없이 모든 PP가 EPP 주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자료들은 EPP가 순전히 음성조건에 의해서만 축소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정리해보면, 영어의 경우 [Spec, IP]가 반드시 어떤 요소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는 격이나 음성조건과 같은 다른 어떤 원리로 설명될 수 없다. 즉, Chomsky (1998)가 가정한 T의 범주선택 자질로서의 EPP는 다른 어떤 원리라도 축소될 수 없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즉, 영어에서 A-이동의 동인(driving force)은 '격자질'도 '음성조건'도 아닌 T의 'EPP' 범주선택자질이다.

4. 이동과 의미해석 효과

이 장에서는 의무적 이동과 수의적 이동 현상과 관련하여, 어떤 구(XP)의 수의적 이동(optional movement)이 의미해석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Fox (1998)가 제시한 Output-Economy와 Chomsky(1999)가 명명한 INT(Interpretability Complex)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최대투사범주 XP가 기저-생성된 위치를 벗어나 수의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한 의미-해석적 효과를 수반한다는 가정을 따른다.

4.1. 두 종류의 이동

Chomsky(1998)에서는 최대투사범주 XP가 기저생성된 위치에서 다른 통사적 위치로 이동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EPP 자질로 설명한다. 즉, XP가 이동하는 이유는 기능적 핵(functional head)이 지닌 EPP 범주선택자질 점검을 위해서이다. (Every functional head may have an uninterpretable selectional feature for its specifier position to be filled by a proper element.) 따라서, 기존의 의무적 주어 현상을 위해 설정된 EPP 자질이 T만이 아니라, C나 *v* 그리고 D까지도 EPP 자질을 지닐 수 있게 되어, 자신의 지정어 위치가 XP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제안은 XP 이동에 대한 하나의 일반화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모든 형태론적 자질 점검은 탐색자(probe)가 제자리에 있는 목표(goal) 요소와 일치(Agree)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통사적 대상 XP가 기저위치를 벗어나 다른 위치로 전위(displacement)되는 현상은 기능적 핵인 탐색자 probe의 형태론적 자질 점검을 위해서가 아니라 probe의 EPP 범주선택자질(비해석 자질) 점검을 위해서이다.

한편으로, Chomsky(1998, p. 23)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종류의 EPP 자질을 설정한다.

(22) C나 *v*의 EPP: 수의적 자질

국면(phase)을 구성하는 C나 *v*의 EPP 자질은 수의적 자질이며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

(23) T의 EPP: 보편적 · 의무적 자질

T의 EPP 자질은 모든 언어에 공히 나타나는 보편적 자질일 것이다.

즉, Chomsky(1998)에서는 T의 EPP 자질은 보편적으로 의무적인 반면, C나 *v*의 EPP 자질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수의적 자질이라고 가정함으로써 두 종류의 이동을 설정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Chomsky는 모든 언어에 있어서 문법적 주어는 반드시 [Spec, TP] 위치에 있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가정 때문에 그는 T의 EPP 자질은 보편적으로 의무적 자질이라고 설정한 것이다.

4.2. 의미해석 INT(Interpretive complex) 효과

Chomsky(1999, p. 28)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종류의 이동 중에서 의무적 이동과는 달리, 수의적 이동은 그 결과 반드시 음성부(PF)나 의미부(LF)에 효과를 나타낼 때만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즉, 수의적 이동의 결과 의미부나 음성부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celandic 언어에서 수의적 이동인 목적어 상승(object shift)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의미해석 효과 INT를 수반한다는 것이다(Optional operations can apply only if they have an effect on outcome.

The EPP position of *vP* is assigned interpretive complex INT(semantic interpretation such as new information, specificity/definiteness, focus, etc).

앞서 언급한 Chomsky(1999)의 수의적 이동과 의미해석 효과 INT의 상관관계는 Fox(1998, p. 75)가 제안한 경제성 이론인 Output-Economy에서 출발한다.

(24) Output-Economy: Optional operations must affect the output.

수의적(optional) 자질은 LF 의미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나타난다.

Fox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생각은 양화사 인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는 것으로서 최후수단 원리 (Last Resort Principle), 또는 그 바탕에 깔린 경제성의 원리와 상통하는 것이다. Fox의 이 기본 가정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25) Scope Economy (FOX, 1998, p. 3): Scope shifting operations can't be semantically vacuous.

양화사 인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미적 효과가 나타날 때에만 일어난다.

위의 가정이 말해주는 바는 양화사가 의미와 관련된 목적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어떤 동인이 있어야 하고 이 동인은 형태론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것이라는 점이다.¹¹⁾ 이 주장을 보다 구체화하여 Fox는 아래의 두 문장에서 목적어 양화사들의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6) a. A boy loves every girl. (중의적)
 - (i) There is a boy who loves every girl.
 - (ii) For every girl_i, there is a boy who loves her_i.
- b. John loves every girl. (비중의적)
 - (i) There is John who loves every girl.

(26a)에서는 every girl이 IP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26b)에서는 VP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Fox는 이것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양화사 인상 ((Quantifier Raising: QR)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하나는 의무적 QR(obligatory QR)로서 어떤 양화사가 해석을 받기 위해서는 명제를 성분통어

11) 이러한 가정은 모든 이동의 동인은 형태론적 자질점점이라는 최소주의 이론의 가정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Fox의 가정에 따르면, 결국 이동이 반드시 형태자질 점점을 위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자리로 최단이동을 겪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또 다른 QR은 수의적 QR(optimal QR)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일어났을 때에 Scope Economy를 만족시키는 QR이라고 정의된다.

(27) 의무적 양화사 인상: QR의 결과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목적어 양화사는 해석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최단거리인 VP로 부가 이동해야 한다.

의무적 QR을 (26) 문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28) a. [IP A boy₁ ... [VP every girl₂ [VP t₁ loves t₂]]]

b. [IP John₁ ... [VP every girl₂ [VP t₁ loves t₂]]]

수의적 양화사 인상은 QR의 결과 의미가 변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의성을 띠는 (26a) 문장에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26a) 문장에는 목적어 양화사가 수의적으로 IP에 부가 될 수 있다.

(29) (a) [IP A boy₁ ... [VP every girl₂ [VP t₁ loves t₂]]]

(b) [IP every girl₂ ... [IP A boy₁ ... [VP t₂' [VP t₁ loves t₂]]]]

(26b) 문장은 비중의적인 문장이므로 의미적 차이를 유발하지 못하므로, 목적어 양화사가 수의적으로 IP에 부가 될 수 없다.

(30) (a) [IP John₁ ... [VP every girl₂ [VP t₁ loves t₂]]]

(b) *[IP every girl₂ ... [IP John₁ ... [VP t₂' [VP t₁ loves t₂]]]]

(28)에서 의무적 QR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목적어 양화사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QR은 올바른 해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의무적 QR이다. 반면에 (29)와 (30) 중에서는 (29)만이 허가가 되는데, (29)에서는 QR의 결과 의미가 변화되므로 그 이동이 의미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서 Scope Economy를 충족시키지만 (30)에서는 QR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의미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QR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Fox(1998)가 제시한 Output-Economy와 Chomsky(1999)가 명명한 INT(Interpretability Complex) 제안을 바탕으로, 최대투사범주 XP가 기저-생성된 위치를 벗어나 수의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한 의미-해석적 효과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스페인어의 어순에 적용해 볼 것이다.

5. EPP는 보편적·의무적 자질인가? -영주어 언어인 스페인어와 관련하여

앞서 우리는 T의 EPP 자질은 보편적·의무적 자질이며 따라서 영주어 언어의 후치주어 구문에서 [Spec, TP] 위치에 영허사 pro를 설정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T의 EPP 자질은 모든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의무적 자질이 아니라는 것을 스페인어를 통하여 제안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주어 언어인 스페인어의 경우, T의 EPP 범주선택자질은 수의적 자질이며, 따라서 스페인어의 VS(O) 어순에서 EPP를 만족하기 위한 허사 pro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다.

5.1. 스페인어 후치 주어 구문의 기존 분석과 문제점: pro_{expl}VS(O)

스페인어 후치 주어 VS 구문에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주어위치인 [Spec, IP]가 어떤 통사적 요소로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EPP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허사 pro를 [Spec, IP] 위치에 설정한다.

(31) [TP pro lloran_i [VP los niños t_i]]
cry the boys

스페인어 시제절에서 위와 같이 후치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 전통적으로 [Spec, TP(=IP)] 위치에 허사(expletive) pro를 설정하였다.¹²⁾ 그 이유는, 영어와 같이 스페인어의 경우에도 전통적 주어 위치인 [Spec, IP]가 어떤 요소로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EPP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어 [Spec, TP] 위치에 허사 pro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첫째, 이론 내적인 이유에서이다. 즉, Chomsky(1995, p. 294)는, 다음과 같이, PF와 LF 접합부에 의미있는 요소만이 배변집합(enumeration)에 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32) a enters numeration only if it has an effect in output condition.

아무런 의미자질도 없는 허사 pro의 경우, 영어의 허사 there나 it와는 달리, 음성자질 역시 없으므로, 음성형태 접합부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그렇다

12) 영어 허사 there-구문과 마찬가지로, 위의 스페인어 예문에서도 영허사 pro는 T의 EPP 자질만을 점검·삭제한다. 물론, 동사구 내 제자리에 남아있는 후치주어 'los niños'의 격 자질은 Agree를 통해 T의 ϕ -자질과 점검될 것이다.

면, 위의 가정에서처럼 의미자질도 없고 음성자질도 없는 요소를 배변집합에 들 이유는 없는 것이다.

둘째, 허사 *pro*가 가정되는 스페인어 후치 주어 구문은 영어나 불어의 허사구문((33))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점이다. 먼저, 의미 해석적인 측면에서 두 구문은 서로 다른 면을 보인다. 즉, 영어 *there*나 불어 *il* 허사구문과는 달리, 스페인어 후치 주어 구문((34))에는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가 보이지 않는다.

- (33) a. There arrived a man/*the man (English)
 b. Il est arrivé un homme/*l'homme (French)

- (34) Ha llegado un niño/el niño (Spanish)
 have arrived a boy/the boy

Chomsky (1995)의 제안대로, 허사란 [D] 범주자질을 지니며 반드시 관련명사구(associate NP)와 연관이 되어야하는 것이라면(N-to-D raising), 스페인어 후치 주어 구문에서의 허사 *pro*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련 명사구가 불특정 명사구(nonspecific NP)가 아닌 정명사구 DP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통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영어 허사 *there* 구문((35))의 후치 주어가 비대격(unaccusative) 동사의 내적 논항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는 반면, 스페인어 후치 주어 구문((36))에는 이러한 통사적 제약이 없다.

- (35) *There jumped a man in the garden. (English)

- (36) a. Han comprado mis padres un ordenador. (Spanish)
 have bought my parents a computer
 'My parents have bought a computer'
 b. Ha llorado esta estudiante por suspender una asignatura.
 have cried this student for fail a subject
 'This student have cried for failing a subject.'

위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는 타동사(36a)나 비능격동사(36b)도 후치 주어 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스페인어 후치 주어 구문에서 영어 허사 *there* 과 같은 성격의 영허사를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스페인어에서 SV 어순과 VS 어순 구문의 의미적으로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pro_{expl}* VS 후치 주어 구문에서 [Spec, TP] 주어 위치에 설정된 허사 *pro*가 EPP라는 형상구조 요건만을 만족시킨다면, SV 전치주어 구문과는 의미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의 어순은 정보구조에 민감하게 의존하고 있다(cf. Contreras, 1983).

- (37) a. ¿Quién llegó?
 who arrived
 b. Llegó Juan.
 arrived Juan

- (38) a. ¿Qué pasó con Juan?
 what happened with Juan
 b. Juan llegó.
 Juan arrived

위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의 경우 주어가 신정보(new information)를 나타낼 경우에는 후치 주어로 나타나며((37b)) 구정보(old information)를 나타낼 경우에는 전치주어로 나타난다((38b)). (영어의 경우 이러한 정보구조와는 무관하게 주어는 항상 동사 앞 [Spec, TP]에 위치해야 한다.) 즉, 스페인어의 정상어순은 영어처럼 ‘주어 + 술어’ 어순이 아니라, 정보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구정보 + 신정보’ 어순이다. 즉, 스페인어에서 일반적인 무표적 어순은 새로운 내용(신정보)을 동사 뒤에 나열시키는 어순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페인어 후치 주어 VS 구문의 주어위치 [Spec, TP]에 허사 pro를 설정하는 것은 이러한 SV와 VS 구문의 의미 해석적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¹³⁾ 이상에서 우리는 스페인어 후치 주어 구문에 허사 pro를 주어위치에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따라서, 스페인어 후치 주어 VS 구문에는 허사 pro

13) Chomsky (1995)에서는 배변집합 Numeration이 서로 다른 문장은 경제성 원리에 의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 (i) a. There is a man in the room.
 b. A man is in the room.

위의 두 문장은 Numeration이 서로 다르므로 비교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스페인어 후치주어 구문에서도 허사 pro가 배변집합에 포함된다면 전치주어 구문과 경제성 원리에 의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래의 두 구문에서는 허사 pro의 병합이나 주어 명사구의 이동으로 모두 T의 EPP 자질을 점검한다.)

- (ii) a. [_{pro}^{expl} [Verb [Subject ...]]]
 b. [Subject_i [Verb [_i ...]]]

그러나 본 논문에서처럼 스페인어 후치주어 VS 구문의 T는 EPP가 없어서 허사 pro가 배변집합에 없다고 가정한다면, 위의 두 구문은 동일한 배변집합을 가질 것이고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iii) a. [verb [Subject ...]]
 b. [Subject_i [Verb [_i ...]]]

동일한 배변집합 속에서 전치주어의 이동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 T의 EPP 자질이 수의적 자질이어서 전치주어가 이동하는 경우에는 Topic이라는 의미해석 효과 INT를 띠게 된다고 본다(후치주어는 제자리에서 신정보로 해석이 된다(cf. Zubizarreta, 1994)). 따라서 본문에서 논하고 있는 전치주어와 후치주어 구문의 정보구조적 의미의 상이성은 허사 pro의 설정 없이 더 잘 설명된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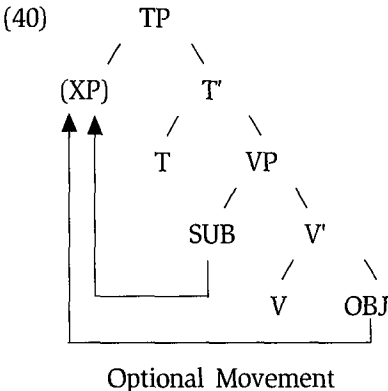
가 불필요하며, EPP를 만족하기 위해서 [Spec, TP] 위치에 순수 병합되는 파생단계 역시 없는 것이다.

5.2. 스페인어의 어순과 수의적 EPP 자질

앞에서 우리는 스페인어 후치주어 구문에 영허사 pro가 불필요하며 따라서 이 구문의 T에는 EPP 자질이 없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페인어의 VS/ SV 어순이 보여주는 정보구조적 의미 효과를 고려한다면 스페인어 T의 EPP 자질은 수의적 자질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즉, Chomsky (1999)의 제안대로 수의적 자질이 의미해석 효과 INT를 나타낸다는 점을 따른다면, 스페인어의 어순이 보여주는 정보구조적 의미해석 효과는 T의 EPP 자질이 수의적 자질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페인어 어순에 대해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문장들은 오른쪽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가능한 문장이다.

- (39) a. [TP Compró_v [vP Juan t_v el ordenador]] ← ¿Qué pasó?
 bought Juan the computer what happened
- b. [TP Juan_i compró_v [vP t_i t_v el ordenador]] ← ¿Qué compró Juan?
 Juan bought the computer what bought Juan
- c. [TP El ordenador_i lo compró_v [vP Juan t_v t_i]] ← ¿Quién compró el ordenador?
 the computer it bought Juan who bought the computer

위의 문장들에서 보다시피, 스페인어에서 문장의 어떠한 구성성분이 동사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의무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문장 전체가 신정보인 경우, 동사로 시작되는 문장(39a)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39b, c)의 문장과 같이 주어나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이동해 온 경우, 이들 문장 구성성분들은 topic의 의미해석을 띤다. 동사 앞 요소가 반드시 주어만이 오지 않고 다른 문장 구성성분들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은 (40)과 같이 주어나 목적어가 수의적으로 [Spec, TP] 위치에 이동되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대로 수의적 자질은 반드시 LF 의미효과 INT 효과를 수반한다고 했다. 스페인어의 경우, 동사 앞 위치로 이동해 오는 구성성분들은 그 결과 반드시 정보적 의미효과(예: Topic)를 나타낸다. 즉, 스페인어의 전치주어는 여타 다른 어휘구 XP와 마찬가지로 정보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된 요소로서 주로 Topic으로 기능하며 기저-생성된 위치에서 이동하여 Topic-Comment의 정보구조 의미효과(INT)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수의적 자질과 의미효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스페인어의 T는 수의적 EPP 자질을 지닌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문장의 어떤 구성성분이 동사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구조적 의미효과를 나타낸다고 본다. 전치주어를 포함한 모든 XP는 T의 Spec위치에서 수의적 EPP 자질을 점검한 결과 정보-구조적 의미효과 INT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기존의 A/A'-위치의 구분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이들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GB에서와 달리, 최소주의에서의 [Spec, TP] 위치는 논항만이 올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스페인어 T의 SPEC 위치는 이동 여부에 따라 생길 수도 안 생길 수도 있는 가변적인 위치로서 어떠한 구성성분이 이동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INT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어와 스페인어에서 [Spec, TP] 위치에 오는 요소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어나 스페인어 모두 [Spec, TP]에 위치하는 요소들은 격 주어가 아닌 T의 EPP 자질을 점검하는 EPP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영어의 [Spec, TP] 위치는 기존의 A-위치로서, 여기에 오는 EPP 주어(주격점검을 하지 않는 EPP 주어라도)는 의무적 주어역할을 하며 의미해석 INT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 즉, 영어의 T는 의무적 EPP 자질을 가지므로 의무적 병합을 요구한다.¹⁴⁾

14) Yang(2001)은 영어의 주어도 수의적 일치현상인 이차일치(secondary Agree)를 보이는 경우에는 의미해석 효과 INT가 나타난다고 제안한다. 그 예로서 그는 there-구문과 장소전치구문을 들고 있다. 먼저 there-구문을 보자.

- (i) a. There is a man in the room. [-specific]
 b. A man is _t in the room. [±specific]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there-구문에서는 후치 명사구가 불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반면, 이동을 겪은 (ib) 구문에서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해석 차이는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미해석의 차이는 there-구문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i)의 두 예문은 각각의 배번집합(enumeration)이 서로 다르므로 그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Yang(2001)은 T의 EPP만을 점검(수의적 이차일치 secondary Agree)하는 장소전치구문(locative inversion construction)은 의미해석 효과 INT를 나타낸다고 제안한다.

- (ii) [In L.A.] live many hippies.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장소전치구문은 T의 격과 EPP 모두를 점검(의무적 일차일치 primary Agree)하며 의미해석 효과 INT가 없다고 가정한다.

- (iii) [Under the chair] is a good place to hide.

이에 반해, 스페인어의 [Spec, TP] 위치는 의미효과 INT를 나타내는 A'-위치로서 의무적 주어역할을 하진 않는다. 즉, 스페인어의 T는 수의적 EPP 자질을 지녀, 자신의 지정어 위치는 가변적 위치이며 여기에 어떤 구성성분이 이동해 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INT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요약하면, EPP 주어가 주격주어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영어나 스페인어 모두 같으나, 스페인어의 경우에 EPP 주어가 [+INT]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영어와 다르다.

본 논문의 제안대로 [Spec, TP]가 기존의 A'-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면, 몇몇 학자들이 제안한 CP와 TP 사이의 또 다른 기능범주(CP recursion 구조)를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Zubizarreta(1992)는 FP, Ordóñez와 Treviño (1995)는 GP, Uriagereka (1995)는 FocoP, Lee(2001)는 TopP를 CP와 TP 사이에 설정하여 스페인어의 동사 앞 전치 요소들을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아래에서처럼 더 단순화된 구조로서 언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영가설(Null hypothesis)을 추구하는 최소주의 이론에 더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1) [CP [TopP/FP/GP [TP]]] → [CP [TP ...]]

한편, 본 제안은,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스페인어의 [SPEC, TP] 위치는 주격 점검 위치가 아닌 T의 EPP 선택자질 점검 위치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격점검은 제자리에서 이동없이 일치 Agree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어떤 구성성분이 [Spec, TP] 위치로 이동하는 현상은 격점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T의 EPP 범주선택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스페인어의 경우, 영어와 다른 점은 T의 EPP 선택자질이 의무적 자질이 아니라 INT효과를 수반하는 수의적 자질이라는 점이다. 즉, 영어의 경우 동사로 시작되는 평서문이 없는 이유이다.

(42) *[TP Will [_{VP} John love Mary] (평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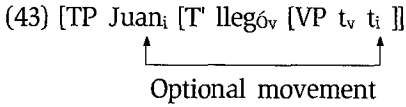
이에 비해서 스페인어는 T의 EPP 자질은 수의적 자질이어서 이동 역시 수의적 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i)와 같은 장소 전치구문이 의미해석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도치된 장소구가 [Spec, CP]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고자 한다(영어 C의 EPP 자질은 수의적 자질이므로 의미해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ii)와 같은 장소전치구문은 의문문 형성이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주어 상승(subject raising)도 불가능한 것이다.

- (iv) a. *Does in L.A. live many hippies?
 b. *Into the room seemed to walk John.

그러나, 의미해석 효과가 없는 (iii)과 같은 장소전치구문은 장소구가 [Spec, TP]에 위치해 있으며(영어 T의 EPP 자질은 의무적 자질이므로 의미해석 효과 INT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문문이나 주어상승이 모두 가능하다.

- (v) a. Is under the chair a good place to hide?
 b. On the hill appears to be located a cathedral.



수의적 이동을 겪게 되면, 본 논문의 기본가정처럼 의미해석 효과 INT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44a)에서는 이동이 없으므로 아무런 의미효과를 나타내지 않지만, 수의적 이동을 겪게되는 (44b) 문장의 경우 topic과 같은 의미해석 효과 INT를 보이는 것이다.

- (44) a. Llegó Juan. [-topic]¹⁵
 b. Juan llegó. [+topic]
 Juan arrived

본 논문에서는 수의적 이동이 그 결과 반드시 의미효과를 수반한다는 Fox (1998)와 Chomsky(1999)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며, 스페인어의 어순이 정보의미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을 기초하여 스페인어의 T는 수의적 EPP 선택자질을 가진다고 제안하였다. 스페인어의 T가 수의적 EPP 자질을 가진다고 상정함으로써, 동사 앞으로 전치된 요소를 가진 문장들은 반드시 어떤 정보구조적 의미해석을 지닐 것이다. T의 EPP는 수의적 자질로서 어떤 구 XP가 이동해 올 수 있으며 그럴 경우, T의 EPP 위치에는 INT가 부여되어 LF에서 의미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어의 [SPEC, TP]는 기존의 A'-위치를 대신할 것이다.¹⁶

결국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Chomsky(1988)의 가정과는 달리, T의 EPP 선택자질은 의무적 자질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으로, 본 논문은 스페인어에서 T는 EPP 자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Lee (2001)의 제안을 수정하여 스페인어에도 T는 EPP 자질을 가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6. 어휘 허사와 EPP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어휘허사가 출현하는 언어는 T의 EPP가 의무적 자질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어휘허사는 의미자질이 없더라도 음성자질을 지니므로 배변집합에 포함되어 문장 도출생성에 참여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

15)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페인어의 무표적 어순은 '구정보 + 신정보'의 어순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후치 주어는 새로운 내용인 신정보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Zubizarreta(1994)의 제안을 따라, 이동을 겪지 않고 동사구(VP) 내에 남아 있는 구성성분들은 신정보(focus)로 해석된다고 보며, 이러한 무표적(unmarked) 해석은 의미해석 효과 INT로 보지 않는다.

16) Vallduví (1992)는 카탈란어에서 [Spec, IP] 위치가 A'-위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 다음에서 보듯이 영어와 불어는 이러한 어휘허사가 나타난다.

(45) a. There was a man in the room. (English)

b. It seems that John is honest.

(46) a. Il y a une fleur sur la table. (French)

b. Il semble que ton ami viendra demain.

시제소의 EPP 자질이 의무적이지 않다고 가정되는 스페인어는 이러한 어휘허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47) a. Hay un hombre en la habitación. (Spanish)

there-is a man in the room

b. Parece que Juan es honesto.

seem that Juan is honest

시제소 T의 EPP 자질은 보편적으로 의무적 자질이 아니라는 본 논문의 제안은, 시제절 시제소 T의 격 자질 역시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언어에 있어서 T의 격 자질은 보편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즉, 위의 문장들에서 시제소 T의 주격자질은 어떻게 점검되는가? 먼저 (45b, 47b)와 같은 구문을 살펴보자. 이 구문에서 영어의 어휘 허사 'it'는 T의 격과 EPP 자질을 모두 점검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48) [_{TP} It [_T T seems [that John is honest]]]

어휘허사의 [Spec, TP]로의 순수병합에 의한 격과 EPP 자질 점검

스페인어에는 이러한 어휘허사가 없으며, 영허사 *pro*의 설정도 불필요하다고 본 논문에서 가정하므로, T의 주격자질은 다른 방식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T의 격 자질은 후치 시제절과 일치(Agree)에 의해 점검된다고 제안한다.

(49) [_{TP} T-parece [que Juan es listo]]

일치(Agree)에 의한 격자질 점검

이러한 제안은 스페인어의 절이 영어의 절과는 달리 격을 받는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다음에서 보듯이 스페인어는 영어와는 달리 격 저항 원리(Case Resistance Principle)를 지키지 않는다.

- (50) a. *He blamed it on that Bill was too strict. (T. Stowell, 1981:71)
 b. Luis se había hartado de que Mario bebiera tanto. (S. Plann, 1986:340)
 Luis had tired of that Mario drink so much

영어의 경우 Stowell(1981)이 제안한 바대로 절은 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올 수 없다. 그러나 스페인어의 경우 (50b)에서 보듯이 절은 전치사 'de'(of)와 함께 반드시 와야 한다. 이는 스페인어의 절이 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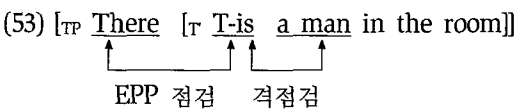
- (51) a. I am sure (*of) that John will pass the exam. (English)
 b. Estoy seguro *(de) que Juan aprobará el examen. (Spanish)
 (I)-am sure of that Juan pass-fut the exam

영어와 스페인어의 동일한 의미의 예문에서 보듯이, 영어의 경우 시제절이 전치사와 함께 올 수 없는 반면, 스페인어의 경우에는 시제절이 전치사 'de'와 함께 나타나야 한다. 이는 어휘 핵이 보충어(complement)인 명사구에 격을 부여할 수 없을 때 도입되는 'of-insertion'과도 같다.


- (52) a. The destruction of the city (English)
 b. La destrucción de la ciudad (Spanish)

따라서, 스페인어 시제절의 경우, 명사구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충어로 선택하는 어휘 핵이 격 부여 자질이 없다면 전치사 'de'를 삽입시켜 격을 받아야 한다. 만약 스페인어의 절이 격을 받는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앞서 제안한 (49)의 격 점검 기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영어의 경우에는 절이 격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어휘허사 'it'가 시제소 T의 격과 EPP 자질을 모두 점검할 것이다 (cf.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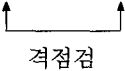
이어서, 존재구문(existential construction)에 나타나는 어휘허사를 살펴보자. 앞에서 보았듯이, 영어와 불어의 경우 존재구문에 어휘허사가 반드시 나타난다. 먼저 존재구문에 대한 Chomsky(1998)의 제안을 살펴보자. Chomsky(1998)에 의하면, 영어 어휘허사 'there'는 T의 EPP만을 점검하며 T의 주격자질은 일치(Agree)에 의해 후치 관련명사구에 의해 점검된다.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불어의 존재구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것이다.

(54) [TP II [T T-y-a une fleur sur la table]]


다음과 같은 스페인어의 존재구문에는, 영허사도 없으며 따라서 EPP를 점검할 필요도 없으므로, 후치 주어가 시제소 T의 주격자질을 일치(Agree)에 의해 점검할 것이다.

(55) [TP T-Hay un hombre en la habitación]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닌다. 먼저 스페인어의 후치 주어는 대명사로 바뀔 때 주격이 아닌 목적격 대명사 형태로 복사된다는 점이다.

(56) A: ¿Hay un hombre en la habitación?
 there-is a man in the room
 B: Un hombre, sí lo hay en la habitación.
 a man yes him there-is in the room

이는 스페인어 존재구문의 후치 주어가 T의 주격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영어의 'there'에 해당하는 장소 대형태(locative proform)가 불어와 스페인어의 존재구문에는 'y'라는 접어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cf. Freeze, 1992). 문제는 불어에 장소 대형태 'y' 이외에 어휘허사 'il'이 왜 나타나는 가이다.

(57) II y a une fleur sur la table. (Fre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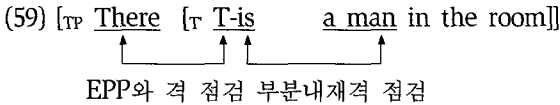
위의 예문에서, 장소 대형태인 'y'가 영어의 'there'처럼 시제소 T의 EPP 자질을 점검한다고 가정한다면, 어휘허사 'il'은 나타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불어에서 장소 대형태와 어휘허사의 역할이 서로 다르다고 제안한다. 즉, 불어의 존재구문에서 장소접어 'y'는 T의 주격자질을, 어휘허사 'il'은 T의 EPP 범주선택자질을 점검할 것이다. 불어와 마찬가지로 장소 대형태 접어가 나타나는 스페인어의 존재구문을 보자.

(58) Hay un hombre en la habitación. (Span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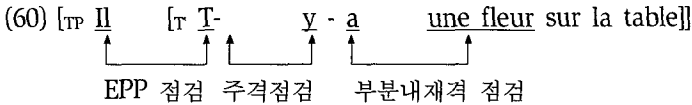
스페인어의 존재동사인 'hay'는 'ha'동사와 장소 대형태 접어인 'y'가 붙어 있는

모습이다. 본 논문에서는, Lee(1998)의 제안을 따라, 이러한 장소 대형태 접어가 시제소 T의 주격을 점검한다고 가정하겠다. 영어의 경우에도 존재구문의 ‘there’는 장소 대형태로서 불어나 스페인어의 장소접어 ‘y’와 마찬가지로 시제소 T의 주격을 점검한다고 본다. 영어의 ‘there’가 불어나 스페인어의 장소 대형태와 다른 점은, ‘there’는 [Spec, TP] 위치에서 T의 주격뿐이 아니라 T의 EPP 범주선택자질도 점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다시 존재구문을 살펴보자.



위에서 보듯이, there는 순수허사가 아닌 장소 대형태로서 시제소의 주격자질과 EPP 자질을 점검하며, 후치 관련명사구는 동사에게서 부분내재격(partitive inherent Case)을 받는다.¹⁷⁾ Belletti(1988)의 제안을 따라, 후치 관련명사구가 반드시 부정 명사구(indefinite NP)로 나타나는 의미·통사적 제약인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는 부분내재격으로써 설명된다.

불어 존재구문의 경우,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소 접어가 접어화(cliticization)에 의해 시제소 T의 주격자질을 점검하며, 허사 ‘il’은 [Spec, TP] 위치에서 시제소 T의 EPP 범주선택자질만을 점검할 것이다. 불어의 존재구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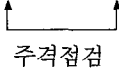
위에서 보듯이, 어휘허사 ‘il’은 T의 EPP 자질만을 점검할 것이며, 장소접어 ‘y’가 T의 주격을, 동사 ‘a’가 후치 명사구와 내재격을 점검할 것이다. 장소 대형태가 접어 $X^{min/max}$ 로서 시제소의 지정어 위치 [Spec, TP]에 오지 않고 동사에 부가된다면, 장소접어는 T의 EPP 범주선택자질을 점검하지 못한다는 것을 불어의 존재구문은 암시한다. 따라서, 불어가 장소논항 접어이외에 어휘허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함은 불어의 시제소 T가 EPP 범주선택자질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역으로, 영어의 장소 대형태인 ‘there’는 접어가 아니라 최대투사범주로서 [Spec, TP] 위치에 병합되므로 T의 EPP 범주선택자질을 점검할 수 있다.

스페인어의 후치 주어 구문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존재구문에도 영희사 pro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EPP를 점검할 필요가 없으며, 시제소 T의 주격자질은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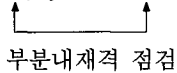
17) Lee (1998)에서는 영어 there-구문에서의 ‘there’가 순수허사가 아니라 장소논항으로서 시제소의 주격자질을 점검한다고 가정한다.

소접어 'y'에 의해 점검될 것이다(cf. (61a)). 그리고 영어나 불어와 마찬가지로, 후치 부정명사구 NP는 동사 'ha'에 의해 부분내재격을 허가받을 것이다(cf. (61b)). 이는 스페인어의 존재구문에서의 후치 주어 명사구가 주격이 아닌 목적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cf. (56)).¹⁸⁾

(61) a. [TP T- Ha- y un hombre en la habitación]



b. [TP T- Ha- y un hombre en la habitación]



이상에서 우리는 시제소 T가 EPP 범주선택 자질을 의무적으로 지니는 언어에서 이를 점검해 주어야 하는 어휘허사가 반드시 [Spec, TP] 위치에 나타남을 보았다.

7. 결 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Chomsky(1998)에서 가정하고 있는 T의 EPP 자질이 보편적으로 의무적 자질이 아님을 스페인어의 경우를 통하여 보았다. 따라서, 스페인어와 같은 영주어 언어의 경우, T의 EPP 선택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영허사 주어 pro는 불필요한 문법적 수단임을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다. 다시 말해서, T의 EPP 자질이 의무적이지 않은 언어에서는 [Spec, TP(=IP)] 위치는 투사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위치가 될 것이다. 한편으로, 본 논문에서는 수의적 이동이 그 결과 반드시 의미효과를 수반한다는 Fox(1998)와 Chomsky(1999)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며, 스페인어의 어순이 정보의미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을 기초하여 스페인어의 T는 수의적 EPP 선택자질을 가진다고 제안하였다. 스페인어의 T가 수의적 EPP 자질을 가진다고 상정함으로써, 동사 앞으로 전치된 요소를 가진 문장들은 반드시 어떤 정보구조적 의미해석을 지닐 것이다.

18) 스페인어에는 부분격을 나타내는 대명사 형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격 대명사인 'lo'가 부분격을 대신한다고 가정한다.

참고 문헌

- Alexiadou, A. and E. Anagnostopoulou. (1998). Parametrizing AGR: Word order, v-movement and EPP-checking. *NLLT* 16, 491-539.
- Belletti, A. (1988). The Case of Unaccusatives. *Linguistic Inquiry* 19(1), 1-34.
- Boeckx, C. (2000) EPP eliminated. m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 MIT.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IT Press.
- Chomsky, N. (1998).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5. MIT.
- Chomsky, N. (1999). Derivation by phase.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8. MIT.
- Collins, C. (1997). *Local Economy*. Cambridge: MIT Press.
- Contreras, H. (1983). *El orden de palabras en español*. Madrid: Cátedra.
- Contreras, H. (1991). On the position of subjects. *Syntax and Semantics* 25.
- Epstein, S. E. Groat, R. Kawashima, and H. Kitahara (1998). *A Derivational approach to Syntactic Relations*. Oxford: Oxford U. Press.
- Epstein, S. E. and Seely, T. D. (1999). SPEC-ifying the GF "Subject"; eliminating A-Chains and the EPP within a Derivational Model. ms.
- Fox, D. (1998). *Economy and Semantic Interpret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Freeze, R. (1992). Existential and other locatives. *Language* 68(3), 553-595.
- Fukui, N. and M. Speas. (1986). Specifiers and Projection.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8.
- Gili y Gaya, S. (1973).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Vox.
- Hale & Keyser. (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s of syntactic relations. In Hale and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pp. 53-109). Mass.: MIT Press.
- Jang, Y.-J. (1997). *Tense and Complementizer Feature-Checking*.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Publisher.
- Kim, K.-S. (2000). On non-DP subject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 10(1), 37-70.
- Kim, S.-W. (2001). A Study on the EPP in the minimalist program: The EPP as a PF requirement. *Studies in Modern Grammar* 24.
- Koopman, H. & Sportiche, D. (1988). Subjects. ms.
- Lasnik, H. (1999). On feature strength: Three minimalist approaches to over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0, 197-217.
- Lasnik, H. (2000). A Note on the EPP. ms.
- Lee, H.-B. (1999). On defining mov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4(4).
- Lee, M.-K. (1998). There-construction and locative argument. *Language Research* 34(3), 649-669.
- Lee, M.-K. (2001). EPP and Spanish.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6(1), 95-113.
- Martin, R. (1999). Cas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and minimalism. In S. D. Epstein and N. Hornstein, eds., *Working Minimalism* (pp. 1-26). Mass.: The MIT Press.
- Ordóñez, L. and E. Treviño. (1995). El sujeto y objetos preverbales en español. ms.
- Pesetsky, D. and E. Torrego, (2000). T-to-C Movement: Causes and Consequences. ms.
- Plann, S. (1986). On case-marking clauses in spanish: Evidence against the case resistance principle. *Linguistic Inquiry* 17(2), 336-345.
- Rothstein, S. D. (1983). *The Syntactic Forms of Pred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Solà, J. (1992). *Agreement and Subjects*. Doctoral dissertation. UAB.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 Stump, G. T. (1985). *The Semantic Variability of absolute Construction*. Dordrecht: Reidel.
- Uriagereka, J. (1995). Aspects of the syntax of clitic placement in western Romance. *Linguistic Inquiry*, 26(1).
- Uriagereka, J. (1998). Multiple spell-out. ms.
- Vallduví, E. (1992). A preverbal landing site for quantificational operators. *Catal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 Yang, D.-W. (2001). Case and secondary agree. ms.
- Zubizarreta, M. L. (1992). Word order in spanish and the nature of nominative Case. ms.
- Zubizarreta, M. L. (1994). The grammatical representation of topic and focus. *Cuadernos de Lingüística del I.U. Ortega y Gasset* 2.

이 만 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어서문학과

전자우편 : mankilee@snu.ac.kr

홈페이지 : <http://plaza.snu.ac.kr/~mankilee>

접수일자 : 2002. 1. 15

수정본 접수 : 2002. 2. 1

게재결정 : 2002. 2. 22